

■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와 저작인격권에 관한 사항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기존 음악 사용을 위해 연락 할 경우, 음저협 측에서 사용자가 음악저작권자에게서 ‘저작인격권’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무조건 사용자가 ‘저작인격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도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음악저작물의 편곡이나 개사가 있지 않으면 ‘저작인격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1. <2012.09.04.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합의서> 중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용료 규정 제34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저작인격권 동의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음악의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음저협은 사용자에게 ‘저작인격권’의 동의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거 2.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 음악저작물의 개사나 편곡 등의 변형이 있지 않다면 ‘저작인격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편곡, 개사 등을 통한 사용의 경우 원저작권자(작사/작곡)의 사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음저협에 편곡과 관련한 별도의 비용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2. 음악저작물의 곡명, 저작권자의 성명을 영화 크레딧에 꼭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근거 1.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크레딧에 곡명, 저작권자의 성명은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3.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 본인에게만 부여된 권리로 신탁·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저작권법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 본인에게만 속한 권리로, ‘저작인격권’에 대한 유가족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기존곡 사용의 경우, 음악신탁 3 단체에 사용료를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음악신탁 3단체 :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또는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2)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3)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혹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 처리 기준

제34조(영화 사용료) ①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하는 경우의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300만원 + (스크린당 곡단가 × 개봉 첫날 스크린 수) × 지분율¹⁾

비고1) 스크린당 곡단가는 13,500원으로 한다.

비고2) 개봉 첫날 스크린 수는 영화진흥위원회 극장 입장권전산망 집계를 기준으로 한다.

비고3)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의 경우, 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료의 1/10로 한다. [제작비 확인서 제출 : 영진위 창작지원팀 구분석 팀장에 문의 (051-720-4773)]

비고4)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 지분율 : 신탁단체의 음악 신탁 비율
 (예)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작곡가 1명과 작사가 1명으로, 작곡가(음저협에 신탁)와 작사가(함저협에 신탁)의 신탁 단체가 다를 경우 : 음저협에 사용료의 50%, 함저협에 사용료의 50% 납부.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음저협과 함저협의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2)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음악저작권 처리 기준

제15조(영화 등 영상물의 사용료) 영화관 등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의 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의 가격에 곡별 음악저작권관리비용을 적용한다.			
<단위 : 만원>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일반 상업영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저예산 독립영화 (순제작비4억원 미만)	20만원	40만원	60만원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3)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저작권 처리 기준

제11조 (영화 및 비디오, 광고 등 영상물) ① 영화, 비디오, 광고 등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 창작곡을 위한 음악감독과의 계약서에 하단의 문구를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관련 조문>

1. (저작권 양도의 경우) '음악감독'이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제작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음악감독'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저작권 양도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작사'는 위 저작권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1. (이용 허락의 경우) '음악감독'이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음악감독'에게 귀속된다. '음악감독'은 국내외에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한 자가 음악저작물을 '본건 영화'에 삽입하고 '본건 영화'를 상영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시키는 것(인터넷, 지상파, IPTV 등을 통한 영화의 송신, VOD 서비스의 제공, DVD 제작 및 배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을 허락하며, 이를 위한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작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음악감독'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본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작사'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단, 해외지역에서 공연사용료 등을 '갑'(제작사 또는 투자사)이 아닌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을 (음악감독)'이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 관련 조문>

1. '음악감독'은 영화의 특성상 '제작사'가 음악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영화 내에서 본건 음악저작물이 사용되는 방식이나 삽입되는 장면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 저작인격권 관련 분쟁 사례

사례 1.

영화의 엔딩크레딧에 음악저작물 저작권자의 성명을 분명히 표시하지 않음(작곡, 작사 등)
→ 합의금 지급

사례 2.

영화에서 배우가 가창한 부분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
→ 편곡과 개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침해 아님

사례 3.

다큐멘터리 출연자의 노래방 가창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
→ 편곡과 개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침해 아님

※ 이외에 궁금한 것들은 제협으로(02-2267-9984)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